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분석*

- ‘소프트파워’ 개념과 관련하여 -

魏幸復**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소프트파워 이론의 유입과 文化産業 概念의 형성
3. 문화산업 정책의 수립과 정부주도형 성장
4. 文化崛起의 꿈과 소프트파워
5. 文化産業과 文化事業의 拮抗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소프트파워(soft power, 軟實力)는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1991년에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의 하드파워(hard pow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창안한 용어로서, 문화, 정치적 가치, 공공외교 등을 통한 설득과 매력 발산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¹⁾ 한 국가가 풍기는 매력은 문화, 체제, 사회상, 이념, 외교 등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정의된 ‘문화’가 소프트파워 형성의 주요 성분이 된다는 설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은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NRF-2016S1A6A7932134)

** 漢陽大學校 中國學科 教授

1) 김상배의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15쪽 참조

중요한 영역이며, 통신기술과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했고 대중도 나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대중문화가 소프트파워 형성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시장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풍부한 문화를 보유한 나라로서, 고도성장에 성공함으로써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정치·경제적으로도 뚜렷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미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에 문화산업을 급속히 성장시켜 온 결과, 중국은 지금 세계 문화시장에서 막강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스의 2018년도 소프트파워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27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별로 굵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규모 2위’라는 위상과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에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줄고는 자국문화의 발전과 소프트파워 신장을 중시하며,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소프트파워 빈국으로 남게 된 원인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중국문화산업의 성장 과정과 현재의 상황, 중국 문화시장의 현재 동향, 한·중 문화교류의 경험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왜 그렇게 좋지 않은지를 규명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2. 소프트파워 이론의 중국 유입과 문화산업 개념의 형성

중국에서는 1992년에 벌써 何小東 등이 나이의 저서 『Bound to Lead』를 『미국은 반드시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美國定

能領導世界嗎?)』라는 제목으로 번역함으로써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소개했다. 곧 이어 1993년에는 復旦大學의 王滬寧이 논문 「국력으로서의 문화 : 소프트파워(作爲國家實力的文化 : 軟權力)」를 통해 문화를 소프트파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²⁾ 그리고 중국정부가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문화’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었다.

중국에서의 문화사업은 ‘社會主義 公民’ 배양을 목표로 하는, 즉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정치적 과정인데,³⁾ 1990년대까지의 중국에서는 ‘문화’를 ‘文化事業’의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국외에서 유입된 문화상품에 중국의 문화시장이 노출되기 시작했고, 江澤民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정부가 문화시장에의 개입과 통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6년 10월의 ‘중국공산당 제14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國共產黨十四屆六中全會)’에서 통과된 「사회주의정신문명수립 강화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中共中央關於加強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若干重要問題的決議)」에는 사상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화상품의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 담기게 되었다. 중국 안팎에서 생산된 저급한 문화상품의 유통이 단속이 필요할 정도로 확대됨으로써, 불건전한 문화상품이 국민들의

2) [네이버 지식백과] 소프트파워 [Soft Power]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38134&cid=58400&categoryId=58400>

3)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직후인 1979년 9월에 葉劍英이 제시한 ‘사회주의정신문명(社會主義精神文明)’ 개념은 鄧小平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의 이념적 기반으로 있었다. 그 후로도 ‘문화’ 혹은 ‘정신문명’은 계몽의 도구로서 인식되었고, ‘문화사업’은 국민소양의 배양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제반 문화활동 혹은 계몽활동이었다. 즉 중국에서의 문화사업은 ‘공공성’ 혹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과정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적’ 혹은 ‘경제적’ 과정은 아니다.

사상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화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⁴⁾

1997년 9월의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中國共產黨第十五次全國代表大會)에서 문화가 ‘종합국력의 중요한 지표(綜合國力的重要標志)’로 설정되었고,⁵⁾ 강택민 정부 후기에 접어들면서는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였다. 2000년 10월 11일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 중앙의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최초의 공식문건이었는데, ‘문화’의 산업적 속성과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쓰임새를 우선시하면서 사회적 쓰임새와 경제적 쓰임새를 일치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문화체제의 개혁을 심화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체제와 문화생산품의 생산과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 문화산업 정책을 개선하고, 문화시장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⁶⁾

4) 위행복,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중국어문논역총간』 제41집) 185~186쪽

5) 이 글에는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 문화’는 ‘중국민족의 오천년 문명사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자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대한 의지 그리고 외국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낼 수 있으며, ‘문화안보’나 ‘중화주의’ 혹은 ‘새로운 보편의 제시’ 등과 같은 이념들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6) 堅持把社會效益放在首位、社會效益和經濟效益相統一的原則，深化文化體制改革，建立科學合理、靈活高效的**管理體制和文化產品生產經營機制**。……完善文化產業政策，加強文化市場建設和管理，推動有關文化產業發展。

<http://cpc.people.com.cn/GB/64162/71380/71382/71386/4837946.html>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의 ‘문화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公的 영역이며, 경제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산업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 쓰임새를 앞세우고는 있지만, 산업적·경제적 효용에도 시선을 보내는 변화가 감지된다. 경제발전을 위한 관심 영역 속에 문화산업을 편입한 것이고, 문화산업 발전을 정부가 주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⁷⁾ 강택민 정부는 2000년 2월에 발표한 ‘세 가지 대표(三個代表)’⁸⁾ 속에 ‘선진문화’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⁹⁾

그 후 2002년 11월 8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강택민은 「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적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창립한다(全面建設小康社會, 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라는 제목의 보고를 행했는데, “지금의 세계에서 문화는 경제 및 정치와 상호 융합하며, ‘종합국력’ 경쟁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¹⁰⁾고 함으로써, 문화상품이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게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강택민의 집정 기간 동안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구분하는 시각이 자리를 잡았고, 이 둘을 함께 발전시킬 정부주도의 문화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할 발상이 형성된 것

7) 2001년 10월에 발표된 「문화산업발전10차5개년계획 강요(文化產業發展十個五年計劃剛要)」에도 같은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8) ‘세 가지 대표’ 이론은 중국공산당이 ‘선진적 생산력의 발전적 요구(先進生产力的發展要求)’、‘선진문화의 전진방향(先進文化的前進方向)’、‘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적 이익(最廣大人民的根本利益)’ 등의 핵심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방침인데,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한다는 것은 보다 강력하게 국내의 문화적 추세 형성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9) 위행복,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중국어문논역총간』 제41집) 186~187쪽

10) 當今世界, 文化與經濟和政治相互交融, 在綜合國力競爭中的地位和作用越來越突出.
<https://www.fmprc.gov.cn/ce/cech/chn/xwss/t115277.htm>

이다.

3. 문화산업정책의 수립과 정부주도형 성장

胡錦濤 정부는 ‘문화’를 국가의 重大事業 속에 포함시켰다. 호금도는 국가운영의 핵심적 강령으로서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을 제시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의 하위 항목 속에 ‘문화건설’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의 성장 기반이 더 공고해졌다. 호금도 정부는 또한 중국문화의 국제적 확산을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강택민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소프트파워 개념이 국가정책 입안자들의 관심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0월 11일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의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문화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세계를 향한 중화문화의 발신을 추진하며,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¹¹⁾

3년 후와 5년 후에 중국에서 개최될 국제행사가 문화발신의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는 포부가 읽혀지는데, 북경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상해세계박람회에서의 대규모의 문화행사를 통해 중국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온 세계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5일에 발표한 「중국적 사회주의의 위대한

11) 積極開拓國際文化市場，推動中華文化走向世界。辦好北京奧運會和上海世博會。
<http://edu.people.com.cn/BIG5/4874910.html>

기치를 높이 올리고, 小康社會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함(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속에 ‘문화소프트파워(文化軟實力)’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문화’와 소프트파워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분명해졌음을 보여주었다.

문화가 갈수록 민족의 단결력과 창조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종합적 국력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나라의 문화소프트파워를 높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익이 더욱 잘 보장되고, 사회적 문화생활이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워지며, 국민들의 정신적 풍모가 더욱 고양되도록 만든다.¹²⁾

문화소프트파워의 쓰임새를 파악함에 있어 여전히 대내적 문화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글에 “대외적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각국의 우수한 문화적 성과를 흡수하며, 중국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강시킨다.”¹³⁾는 내용이 들어있고, 2005년에 발표한 글에서도 이미 문화발신을 강조했음을 보면, ‘문화소프트파워’의 대외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9월 27일에 중국 국무원은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中國文化產業振興規劃)」을 배포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의 종합적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시장 중심으로 발전해 온 문화산업을 정부 주도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문화산업의 구조조정, 문화시장 체제의 개선, 수

12) 文化越來越成爲民族凝聚力和創造力的重要源泉, 越來越成爲綜合國力競爭的重要因素, …… 提高國家文化軟實力, 使人民基本文化權益得到更好保障, 使社會文化生活更加豐富多彩, 使人民精神風風更加昂揚向上.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07-10/25/content_27198418.htm

13) 加強對外文化交流, 吸收各國優秀文明成果, 增強中華文化國際影響力.

출 확대, 중점 영역의 선별과 육성, 금융 지원,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인재 배양, 법률체계의 마련 등등 문화산업 발전을 추진할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전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 문건은 “사회적인 쓰임새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쓰임새와 경제적 쓰임새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¹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문화산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진 것이다.

문화산업은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문화를 번영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擔持體이고, 국민 대중의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다방면적인 정신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경제적 구조조정을 추동하고 경제의 발전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作用點이기도 하다. …… 지금 국제적 금융위기가 아직 바닥을 보이지 않았고,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곤란과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유리한 조건이 무르익는 것이고, 문화는 역방향으로의 조절 기능이 있으니, 문화산업은 경제적 하락의 국면에서 추세를 거슬러 성장하는 특징이 있고, 이 점으로 인해 문화 체제와 매커니즘을 개혁하고 문화산업을 키우고 강화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 기회를 포착해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성장을 보장하고 內需를 확대하며 구조를 조정하고 개혁을 촉진하며 민생을 돕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문화안보 확실히 수호하고, 문화산업의 바로고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여,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로 육성할 것이다.¹⁵⁾

14) 堅持把社會效益放在首位, 努力實現社會效益和經濟效益的統一

http://www.china.com.cn/policy/txt/2009-09/27/content_18607771.htm

15) 文化產業是市場經濟條件下繁榮發展社會主義文化的重要載體, 是滿足人民群眾多樣化、多層次、多方面精神文化需求的重要途徑, 也是推動經濟結構調整、轉變經濟發展方式的重要着力點. …… 當前, 國際金融危機仍未見底, 并對文化產業發展產生諸多影響, 但困難和挑戰中蘊含着新的機遇和有利條件, 文化具有反向調節功能, 面對經濟下滑, 文化產業有逆勢而上的特點, 這為創新文化體制機制、做大做强文化產業帶來了契機. 要抓

세계가 금융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2009년의 상황에서도 중국의 문화산업이 성장을 지속하는 현상을 보면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문화상품이 '문화사업'에 필요한 요소들의 擔持體로 기능한다는 점과 더불어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0월 18에 통과된 「문화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문화의 큰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일부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에서는 '개혁개방을 진일보 심화하고, 문화의 번영과 발전에 유리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구축을 가속화함(進一步深化改革開放, 加快構建有利於文化繁榮發展的體制機制)' 항목에서 '중국문화의 수출을 추진한다' '외국의 우수한 문화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거울삼는다'¹⁶⁾고 언급함으로써 문화와 문화상품의 수출에 방점을 찍었던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과의 차이점을 드러냈다. 이미 북경올림픽 및 상해세계박람회와 2010광주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도 보다 개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발신국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보다 활발히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호금도 정부는 2012년 2월 15일에 발표한 「국가 제12차 5개년계획 시기 문화개혁 및 발전 계획 요강(國家「十二五」時期文化改革發展規劃綱要)」을 통해 그때까지 추진해 온 문화정책을 총괄하였고, 문화산업에 대해서도 이전에 발표했던 방

住機遇, 大力振興文化產業, 爲“保增長、擴內需、調結構、促改革、惠民生”作出貢獻。…… 切實維護我國文化安全, 推動文化產業又好又快發展, 將文化產業培育成國民經濟新的增長點。

16) (五) 推動中華文化走向世界。(六) 積極吸收借鑒國外優秀文化成果。

<http://theory.people.com.cn/BIG5/16018030.html>

침들을 재확인하였는데, 호금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아래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문화산업은 2013년에 이미 중국을 세계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으로 부상시켰다.¹⁷⁾

習近平 정부 역시 ‘문화강국 건설’을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했다. 집권 1기의 마지막 무렵인 2017년 2월 23일에 「제13차 5개년계획 시기 문화부의 문화 발전과 개혁 계획(文化部十三五時期文化發展改革規劃)」이 발표되었는데, 이 문건은 ‘1. 지도사상과 기본원칙(一、指導思想和基本原則)’ ‘2. 발전목표와 주요지표(二、發展目標和主要指標)’ 등등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의 일곱 번째 항목을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지주성 산업이 되도록 추진함(推動文化產業成爲國民經濟支柱性產業)’으로 설정했는데, 그 하위에 ‘디지털 문화산업 발전계획(數字文化產業發展計劃)’ 항목을 포함시켰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요, ‘중국제조2025’의 구호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하이테크의 도입 방침이 문화산업에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습근평 정부의 문화정책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문화산업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대외적 문화교류를 더욱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습근평 취임 초기에 발표된 ‘中國夢’이나 ‘一帶一路’ 등의 공격적이면서도 확장적인 국가운영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문화기업의 인수합병 등 중국 문화기업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지원하고, 문화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중국문

17) 유네스코가 10일 발표한 소속 통계연구소의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2013년 문화상품 수출 총액이 601억 달러에 달해, 제2위인 미국의 279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으며, 세계 최대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었다.(聯合國教科文組織10日發布的其數據研究院的一份最新報告顯示, 中國2013年文化產品出口總值達601億美元, 高出排名第二的美國279億美元一倍多, 成爲全球文化產品最大出口國. 「中國成文化產品最大出口國, 2013年總值601億美元」, 『中國新聞網』, 2016. 03. 11.)

<http://finance.chinanews.com/cul/2016/03-11/7792727.shtml>

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신장을 정부가 적극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호금도 시대부터 ‘소프트파워’를 인식하고 ‘문화강국’을 지향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었는데, 습근평 정부에 들어 ‘밖으로의 진출(走出去)’에 더욱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4. 文化崛起的 꿈과 소프트파워

영국의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스(Portland Communications)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소프트파워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기업·교육·문화·사회참여·정부·세계투표 등을 측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2018년의 각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¹⁸⁾

종합평 균순위	국가	DIGI TAL	ENIER PRISE	EDUCA TION	CULT URE	ENGAG EMENT	GOVER NMENT	POLL ING
1	영국	3위	7위	3위	2위	2위	11위	6위
2	프랑스	2위	18위	5위	3위	1위	15위	5위
3	독일	4위	6위	2위	4위	3위	8위	9위
4	미국	1위	5위	1위	1위	4위	16위	15위
5	일본	8위	9위	10위	14위	5위	17위	3위
20	대한민국	5위	8위	15위	11위	14위	20위	26위
21	싱가포르	7위	1위	23위	28위	30위	23위	22위
27	중국	30위	22위	13위	9위	9위	30위	28위
28	러시아	13위	27위	18위	21위	13위	29위	30위

18) 나무위키에 정리되어 있는 결과를 발췌한 결과임.
<https://namu.wiki/w/%EC%86%8C%ED%94%84%ED%8A%B8%20%ED%8C%8C%EC%9B%8C/%EA%B5%AD%EA%B0%80%20%EC%88%9C%EC%9C%8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소프트파워’ 개념을 국가정책의 수립에 도입하고, 또한 용어를 채택하였다. 경제적으로 이미 G2의 위상을 갖게 된 중국은 소프트파워 강화의 전략으로서 문화산업 발전을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표방하였으며, “社會主義文化強國”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中國夢’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제시한 습근평 정부의 ‘文化崛起’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구호이다. 그러나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스의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디지털, 기업, 정부, 세계투표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소프트파워 순위 27위의 국가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위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중국은 ‘디지털’과 ‘정부’의 두 항목에서는 30위를, 세계투표에서는 28위라는 매우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인터넷 통신의 자유가 부족하고, 국가사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각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주도하에 문화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문화강국으로서의 목표를 내세웠지만, 중국은 여전히 소프트파워 빈국인 것이다.

湖南大學에 중국문화소프트파워연구센터(中國文化軟實力研究中心)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중국은 이미 ‘문화’를 소프트파워 체계의 중요한 영역으로 대하고 있다. G2의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미 세계 최대의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브랜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최근 한국이 겪은 경험에서 사고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인들이 최근 경험했던 바의 ‘사드사태’는 문화산업과의 직접적 관련 하에 전개되었는데, 한국에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이 동원한 보복 수단은 ‘문화’였다. 이른바 ‘限韓令’을 발동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상품이 중국에 진출할 길을 봉쇄한 것이다. 그리고 2년여의 긴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중국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강국’이나 ‘문화굴기’의 개념이 약탈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복이 ‘문화산업’과 긴밀히 관련된 영역을 통해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중국정부의 의도를 파악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권기영은 중국이 문화산업을 보복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에 관한 해석들을 정리해 소개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한한령’과 관련된 문화산업 영역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분쟁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2.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은 중국에 대한 피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3. 중국의 문화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해서¹⁹⁾

이것들 중 필자가 주목하는 해석은 세 번째 의견이며, ‘한한령’ 혹은 ‘사드보복’이 문화산업 영역에 있어 한·중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불균형을 ‘문화 바깥’ 영역의 문제를 핑계 삼아 ‘비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중국은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깊숙이 감췄고, ‘사드 배치’라는 군사적 문제는 빌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양국의 문화상품 교류 현황에 그 답이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정부에 의해 작성된 한·중 양국 간 문화상품 교역에 관한 통계인데, 수치를 보면 ‘사드보복’ 사태가 조성되던 시

19) 권기영,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중국문화연구』 제37집) 27쪽

점에 중국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가장 경계하거나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국이 한국이었을 것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의 대중국 문화상품 수출입 현황 20)

(단위: 천달러)

		2014년	2015년	2016년	비 중 (%)	전 년 대 비 증 감 율 (%)	연평균 증감율 (%)
게임 산업	수출	957,331	1,057,119	1,379,942	42.1	30.5	20.1
	수입	59,160	51,852	60,919	41.3	17.5	20.1
음악	수출	52,798	89,761	98,362	22.1	9.6	36.5
	수입	112	129	98	0.7	24.0	6.5
영화	수출	8,208	9,253	7,038		23.9	7.4
	수입	2,068	2,829	3,947		39.5	38.2
방송	수출	79,017	70,975	79,902	31.4	12.6	0.6
	수입	946	1,666	2,877	2.4	72.7	74.4
캐릭터	수출	102,233	118,563	124,461	20.3	5.0	10.3
	수입	70,545	72,175	70,245	41.2	2.7	0.2
애니메이션	수출	1,848	2,162	1,852	1.3	15.6	0.6
	수입	11	12	10	0.1	16.7	4.7
만화	수출	1,241	1,492	1,325	4.1	11.2	3.3
	수입	112	111	68	1.0	38.7	22.1

2016년 당시 중국은 한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에 있어 매우 심각한 역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정부 주도 하에 문화산업을 육성해 온 중국으로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를 억제해야 할 수단이나 방법이 절실히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애국적’ 중국인들의 높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고, 중국 소비자들의

20)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 참조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낮출 절호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적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굴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했던 한국의 문화상품이 보복의 주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다.²¹⁾ ‘문화대국’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었던 ‘한국 문화상품의 억제’라는 조치가 사드 배치로 인해 팽배해진 反韓 감정에 힘입어 중국 소비자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이니, 말하자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 준 것’이 ‘사드배치’라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의 문화상품과 예술인들은 중국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고, 그 사이에 중국의 문화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지속함으로써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명암이 가장 뚜렷한 영역은 게임산업이었다.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권(판호)을 1년 8개월째 얻지 못하고 있다. …… 한국산 게임이 가장 최근에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시점은 2017년 3월이다. ……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올해 8월 아동과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온라인 게임 규제를 한다는 발표 탓에 기존 중국 게임사도 판호를 받지 못해 한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입이 막혀 있는 사이 한국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게임만이 아니다. 중국의 웹툰과 웹소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의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에서는 중국 웹툰과 웹소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²²⁾

21) 권기영은 중국의 ‘문화안보’ 개념을 경제적 논리 혹은 자본의 논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안보’ 개념을 중국문화시장의 보호수단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중국문화연구』 제37집) 30쪽 참조

22) 「사드 보복으로 韓 게임 중국 진출 막힌 지 1년8개월째…中 콘텐츠 한국 공습은 거세져」, 『조선일보』 2018년 11월 2일

한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이 인위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사이에도 중국 제품들의 한국시장 유입은 계속 허용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품질까지 높아진 중국의 상품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키워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낱낱이 한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어 왔고, 이를 접한 한국의 대중들은 전에 없이 높은 반중 감정을 갖게 되었다. 1992년 수교 이래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이 꾸준히 커오고 있었는데, 일거에 상황을 돌변시키는 조치를 중국 스스로 택한 것이다.

2015년 11월에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5.54점으로 당시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는 3.21까지 하락했다. ……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3.33점)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인의 대중국 정서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2016년 말 ‘한한령’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여론은 오히려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기울었고,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²³⁾

중국학자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학자 王曉玲이 2017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유례없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중국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1.1%에 불과했고, 미국은 지지하는 비율은 39.2%에 달했다. ……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미국이 41.2%인 데 반

23) 권기영,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중국문화연구』 제37집) 41~43쪽

해 중국은 11.3%에 불과했다. 4분의 1 수준이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로 미국 27.1%에 비해 중국은 7.1%에 불과했다. …… 중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한국인도 80.5%에 달했다.²⁴⁾

중국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한국인들은 믿지 않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 2013년에 한국의 대통령이 북경에 가고, 그 다음 해 7월에는 중국의 습근평 주석이 서울을 답방했던 그 시기의 우의와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시 서울에 온 습근평 주석이 서울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의 한 대목은 아래와 같았다.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이 반드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을 무서운 우마왕(牛魔王)에 빗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말들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²⁵⁾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중국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웃나라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습근평의 연설 3년 뒤에 한국인이 직접 보고 겪은 ‘객관’은 위압적이고 약탈적이었던 것이다.

인위적 조치를 통해 한국상품의 중국 문화시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문화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한한령’의 본질

24) 「미·중 충돌때 中지지 1.1%뿐…중국도 놀랐다, 한국의 험중」, 『중앙일보』 2019년 1월 14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286465>

25) 面對中國發展，有些人認為發展起來的中國必然成爲一種“威脅”，甚至把中國描繪成一個可怕的牛魔王。我想告訴大家的是，這種看法是不正確的，好在真理是客觀存在的，並不會隨着這樣那樣的說法而改變。(習近平，「共創中韓合作未來 同襄亞洲振興繁榮——在韓國國立首爾大學的演講」，2014年 7月4日)

<https://wenku.baidu.com/view/3546ec5424c52cc58bd63186bceb19e8b8f6ec28.html>

이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문화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아래에서 실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²⁶⁾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문화기업과 상품들이 국가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문화굴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행한 조치는 국가 차원의 소프트파워를 심각하게 훼손해버렸다. 문화강국의 꿈이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처럼 문화굴기의 꿈을 추진하는 과정과 조치가 오히려 소프트파워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역설은 공자학원의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은 ‘인문교류’를 국가 운영의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많은 재원과 인원을 투입해 광범한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孔子學院과 孔子學堂을 운영해 왔다.²⁷⁾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인구를 가진 중국어의 본산이며, 유교문화를 소프트파워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중국은 ‘공자’를 앞세운 이 두 기관을 빠르게 증가시켜 왔는데, 「孔子學院章程」 제1조의 내용을 보면 그 설립 목적을 중국문화의 국제적 보급에 두고 있다.

공자학원은 세계각국(지구) 국민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에 호응하고, 세계각국(지구) 국민의 중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중국과 세계 각국의 교육과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외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

26) 지난해 텐센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81억 달러에 달했다. ……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전체 게임 업계에서 실행된 투자(약 42억 달러) 중 40%가 텐센트의 투자였다. 같은 기간 게임 업계 M&A(170억 달러 초과)에서 텐센트의 참여 비중은 75%가 넘었다. 전체 게임 업계를 텐센트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게임산업 텐센트가 호령」, 『중앙시사매거진』 2018년 7월 23일)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2079>

27) 國家漢辦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현재까지 146개 나라에 걸쳐 525개의 공자학원과 113개의 공자학당이 설립되었다.
http://www.hanban.edu.cn/confuciousinstitutes/node_10961.htm

발전을 촉진하고 화평한 세계의 건설에 이바지한다.²⁸⁾

중국어 보급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의 문화와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3년에 발표된 「공자학원발전계획 2012 - 2020년」을 보면 공자학원을 ‘문화발신’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욱 확실하게 감지된다.

중국어 교육을 위주로 하되, …… 종합적인 문화교류 발판으로서의 공자학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중국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동하고, 중국과 외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땅한 공헌을 한다.²⁹⁾

‘중국문화의 확장’이라는 의도가 쉽게 감지되기 때문에 공자학원의 급속한 성장과 중국문화의 과도한 침투를 경계하는 시각이 없지 않았고,³⁰⁾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상호적 교류를 중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반감을 누그러뜨리려고 시도하였다.³¹⁾ 또한 중국 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게는 문화교류나 학술교류 등에 결들여 경제원조나 기술원조까지 제공하면서 국가이미지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애써 왔다. 소프트파워 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³²⁾

28) 孔子學院致力於適應世界各國(地區)人民對漢語學習的需要, 增進世界各國(地區)人民對中國語言文化的瞭解, 加強中國與世界各國教育文化交流合作, 發展中國與外國的友好關係, 促進世界多元文化發展, 構建和諧世界.

29) 以漢語教學為主體, …… 充分發揮孔子學院綜合文化交流平臺作用, 為推動中國語言文化走向世界, 促進中外友好關係發展作出應有貢獻.

30) 호금도 정부 기간 동안 중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求同存異’ ‘和而不同’ 등의 용어를 발신한 것을 보면, 중국의 문화적 위상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중화주의나 문화패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1) 외국과의 인문교류와 협력을 심화한다. …… 孔子學院이라는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하여 國外的 優秀한 문화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거울삼는다.

深化中外人文交流與合作. …… 充分利用孔子學院平臺, 積極吸收借鑒國外優秀文化成果.

그러나 공자학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공자학원을 폐쇄시키는 조치로까지 발전되었다.

레이 FBI국장은 또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에 종사하는 재미 중국인의 동향 감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학교수협회도 지난 2014년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 대해 관계 단절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카고 대학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은 이를 받아들여 공자학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했다.³³⁾

미국대학교수협회(AAUP)는 그해(2014년) 6월 “공자학원의 중국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계약의 투명성 향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지금까지 올해 6개교를 포함해 11개 대학이 공자학원 폐원을 결정했다.³⁴⁾

2004년 서울에 설립된 ‘서울공자학원’으로 시작된 공자학원은 습근평 정부에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중화주의’를 경계하는 시각 역시 일찌감치 대두하였다. 유럽이나 일본에도 공자학원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시각은 존재하며, ‘대국굴기’와 ‘문화굴기’의 꿈이 오히려 중국의 소프트파워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2) 아프리카 곳곳에 세워진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역사·문화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IT) 교육도 제공해 인기가 높다. (『美 심장서 阿 벽촌까지...중국몽 침병이 된 '공자학원'』, 『서울경제』 2018년 8월 19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F84GRUT>)

33) 「미 의원, 중국의 해외 '공자학원' 감시 강화 법안 제출」, 『뉴스타운』 2018년 3월 22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75>

34) 「중국 소프트파워 전진기지 공자학원 미국 대학 내 급감」, 『아시아투데이』 2018년 12월 17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17010009886>

공자학원을 통한 중화주의의 확산은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두드러진다. …… 국내 대학들은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와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공자학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화주의의 노골적 전파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은 우리와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나라로 존중하며 협력·우호 관계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공자학원이 중화주의로 치우쳐 있고 중국의 논리만을 설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³⁵⁾

사드사태 이전에도 중국은 ‘사전 제작’ 등등 외국의 문화상품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한국 문화상품의 중국 유입을 까다롭게 하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정치적 부담도 줄여 왔다. 그리고 지난 2년여 간 중국은 한국의 문화상품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제도적 혹은 인위적으로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시장에 자국 문화상품을 공격적으로 진출시켜 왔다. 자국의 문화산업 발전이나 사회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인위적 차단조치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문화상품을 확산하는 데는 상대국의 우려와 경계심을 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인데, 그리하여 한국인들이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싫어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5. 文化産業과 文化事業의 拮抗

호금도는 2004년에 안보의 4대 핵심항목으로서 정치안보, 경제안보, 정보안보, 문화안보 등을 설정했는데, ‘相補’ 관계에 있다는 시각으로 이 네 항목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

35) 「美 심장서 阿 벽촌까지…중국몽 침병이 된 '공자학원」, 『서울경제』 2018년 8월 19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F84GRUT>

는 문화산업과 문화사업 사이의 길항과 중국 문화산업 발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중국 정부가 ‘문화안보’ 개념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를 통한 ‘문화강국’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우선적 요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중주국으로 존재해왔던 중국이었지만, 아편전쟁 이후로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문화적으로까지 철저히 유린당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은 서구적 세계관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여 새로운 ‘普遍’의 제공자가 되려는 ‘문화굴기’의 ‘중국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외래의 문화적 침략으로부터 고유문화를 수호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이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앞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문화안보는 문화침략에 저항하는 개념인데, 문화적 탄력성을 갖추지 못한 주체에 의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변질되거나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거부하는 언술로 동원될 수 있는 소지를 품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사업’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문화안보’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치안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게 되고, 현존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보호가 ‘문화안보’ 개념을 제시한 이유 중의 하나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으로 살피게 되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광대한 영토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써 형성된 중국이 유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데, 지금은 개혁개방 이후의 계층분화와 도농 간 격차 등과 같은 갈등 요소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상당한 정도의 불안요소가 중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혹은 이

넘적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문명 질서는 부조화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인류문명의 발전 역사에서 문명의 다양성은 인류사회의 기본적 특징으로 인류 문명 진보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각종 문명이 상호 학습, 성장하면서 인류문명은 발전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몇몇 국가들은 항상 자신의 정치제도·이데올로기 및 문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민주’, ‘인권’, ‘반테러’의 깃발을 들고, 정치패권과 문화 패권을 휘두르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³⁶⁾

2005년에 행해진 호금도의 발언인데, 외부의 이념적·문화적 충격에 대한 반감과 우려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만리장성방화벽을 운용하면서 아직도 인터넷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발상의 뿌리를 알려주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안보는 문화안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만리장성방화벽은 인터넷 기반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요지부동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터넷 접속 통제시스템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인터넷 관련 기업은 만리장성방화벽을 통과해야만 하고, 거대한 시장을 놓치지 않으면 중국의 심사기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의 포털사이트 역시 예외일 수 없어서, 구글 역시 분규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³⁷⁾

36) 胡錦濤, <努力建設持久和平, 共同繁榮的和諧世界 - 在聯合國成立60周年首腦會議上的講話>, 권기영의 「‘한한령(限韓令)’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중국문화연구』 제37집) 29-30쪽에서 재인용.

37) 구글의 일부 직원들이 구글이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진출을 계속 추진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구글 경영진은 ‘잠자리 프로젝트(dragonflyproject)’라는 이름 아래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감수하는 중국판 검색엔진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일부 직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파업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구글 직원들 중국 진출 계속 추진하면 파업도 불

세계적 관심거리가 된 것으로 ‘차이나 쿼터리’ 사건도 ‘문화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된다.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가 1960년부터 계간으로 출간하고 있으며 중국 연구의 세계적 권위지인 『차이나 쿼터리(The China Quarterly)』가 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的 요구에 따라 논문 300여 편을 삭제했던 사건인데, 삭제된 논문들은 천안문사태나 티베트 문제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한다. 학술지의 편집인은 차이나 쿼터리가 중국에서의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는데, 이 사건은 중국이 검열의 대상을 자국 언론이나 인터넷으로부터 외국의 학술지까지로 확대시켜가는 신호로 해석되었다.³⁸⁾

이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정부와 ‘차이나 쿼터리’를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쳤고, ‘차이나 쿼터리’가 삭제했던 논문을 복구시키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되었는데, 그러나 양측 모두는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입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대학과 학술기관들이 중국 당국의 검열에 저항하고 항의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차이나 쿼터리는 19일 논문 삭제 보도가 나온 지 이틀만인 21일 밤 논문을 다시 게재키로 했다. …… 자신의 논문이 이번에 삭제됐었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아서 왈드론 교수는 "케임브리지의 수백 년간 학술 출판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너무도 현명한 조치"라며 "만약 이번에 굴복했으면, 이는 (중국 당국의) 간섭과 불만 제기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³⁹⁾

사], 『뉴스1』 2018년 11월 30일,
<http://news1.kr/articles/?3489813>

38) 「중국연구 국제학술지 천안문사태 다룬 논문 300편 삭제」, 『kbs뉴스』 2017년 8월 19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36054&ref=A>

39) 「英학술지 "中 압력에 굴복 않겠다 … 논문 다시 게재」, 『연합뉴스』 2017년 8월 22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소프트파워 측정에 있어 ‘디지털’과 ‘정부’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자료나 외국의 학술지 혹은 문화상품을 검열하는 과정은 ‘문화안보’와 ‘정치안보’를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문화안보’를 달성하는 과정은 문화사업의 기준으로 문화상품을 가늠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그 속성상 ‘문화안보’에의 의존도가 높은 ‘정치안보’는 때로는 ‘문화안보’의 영역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정치적 불안요소가 많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영화 「紅海行動」이나 「戰狼2」처럼 강렬한 국가주의적 정서를 담고 있는 영화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문화사업의 결과일 수 있다. 불안요소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小康’ 수준의 안정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념을 통한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중국몽’ ‘굴기’ ‘강국’ ‘대국’ 등등은 문화사업에 동원될만한 선동적 요소를 지닌 개념들로서, 이것들이 대중사회에 현존하는 특정의 정서와 만나게 되면 서로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중의 국가주의적 정서가 「전랑2」의 제작을 부추기고 「전랑2」는 국가주의 정서에 편승해 한껏 흥행수입을 올리고, 정부는 대중의 국가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지지를 획득하고 대중은 자신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더욱 강해지는 국가의 모습에 환호하면서 지지도를 높여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에 동의한다면, ‘대국굴기’나 ‘신형대국관계’의 외침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2/0200000000AKR20170822060500074.HTML?input=1195m>

40) 필자가 국가주의적 애국정서를 중국 문화소비자 특유의 부정적 가치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열렬히 환영받았던 연속극 ‘태양의 후예’ 역시 선명한 국가주의를 담고 있다.

금은 온 세계가 그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미중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까지도 미국이 ‘중국몽’이나 ‘대국굴기’ 구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국내용’에 불과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발표에는 “사회적 쓰임새를 우선시하면서 사회적 쓰임새와 경제적 쓰임새를 일치시키는 원칙을 견지한다(堅持把社會效益放在首位、社會效益和經濟效益相統一的原則)”는 표현이 늘 문건의 첫머리에 기본원칙으로 제시된다. 또한 호금도 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社會主義核心價值觀’의 강령이 습근평 정부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문화사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광대한 영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으로 인해 본래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들, 개혁개방과 고속성장으로 인해 잉태된 문제들, ‘중화부흥’의 욕망이 나라 밖으로부터 불러들이는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문화사업’ 혹은 ‘문화안보’의 측면을 더욱 중시하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로서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6. 나가는 말

중국은 강택민 집권 말기부터 문화산업 발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호금도 정부 때부터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주목했고,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문화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습근평 정부는 ‘중화부흥’ ‘문화굴기’ 등의 정부시책과 연결시키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은 이미 세계최대 문화상품 생산국이 되었는데,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

가되고 있다. ‘문화굴기’ 혹은 ‘문화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거칠고 조급한 방법과 과정이 오히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훼손하고 있으며, ‘문화안보’와 ‘문화사업’ 개념 역시 소프트파워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大國’과 ‘強國’은 의미상 차이가 있는 용어이다. 하드파워가 강하면 ‘강국’이요, 소프트파워가 강하면 ‘대국’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파워에 의한 동의와 협조를 외면한다면, 심지어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 다루듯 한다면, 그 ‘파워’는 배척이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지금 중국을 ‘대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와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을 비판하는 논의 또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매수, 회유, 협박, 여론조작 등등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나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크고 시장도 넓지만, ‘대국’이 갖춰야 할 국가이미지를 중국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중국이 ‘대국’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 때 이웃 나라와의 돈독한 유대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공허한 구호나 선언적 발언만으로는 소프트파워가 형성될 수 없다.

조지프 나이는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2003)을 소프트파워를 떨어뜨린 대표적 사건으로 간주했으며,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의 힘이 민주주의, 자유, 기회, 불굴의 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⁴¹⁾ 중국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만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순조로운 국가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1) 김상배의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15쪽 참조.

參考文獻

- 김상배,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서울, 한울, 2009
- 김동하, 『차이나 소프트파워』, 서울, 무한, 2011
- 김영수 외, 『중국,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부활하는 나라』,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11
- 위행복, 「한·중인문학포럼의 현황과 전망」, 중국어문논역학회, 『중국어문논역총간』 제41집, 2017
- 손한기, 「중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법제고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4권 제2호, 2017
- 오혜정, 「중국 ‘인터넷+ ’ 시대의 새로운 문화동력」,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제50집, 2017
- 권기영, 「‘한한령(限韓令)1’을 통해 본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문화연구학회, 『중국문화연구』 제37집, 2017
- 김승수, 「중국 문화굴기의 역설」,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6호, 2016
- 서창배·오혜정, 「중국의 문화산업화 정책과 소프트파워 전략」,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제1권 제2호, 2014

Abstract

Analysis of China's cultural industry policy
-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oft power' -

Wee, Hang-bok

China has starte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ince the end of Jiang Zemin(江澤民)'s reign. The government of Hu Jintao(胡錦濤) paid attention to 'soft power' and by establishing the "Cultural Industry Enhancement Plan of China", has actually begun to develop the cultural industry. And the government of Xi Jinping(習近平) reinforced the development further on by connecting government's policies, such as 'China Dream(中國夢)', 'the rise of a great nation(大國崛起)', and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China has already become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cultural goods, however regarding soft power, is still in very low position. It is because of the impatient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cultural security is blocking the growth of soft power.

When the THAAD deployment was decided on Korea, the means of retaliation by China was 'culture'. By invoking 'Korean limit(限韓令)-the command to block Koreans from China', China has blocked Korean cultural artists and products to enter China. After going through a long process of two years, Koreans have come to recognize that China is using its

predatory means to develop its cultural industry, and in Korea, anti-Semitic sentiment has become prevalent. The Confucius Institute(孔子學院) is also receiving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ultural invasion, undermining the freedom of scholarship, and the spread of Chineseism.

Cultural industry is an important field to cultivate soft power, and rather, as the soft power increases, the progress of cultural industry follows. China must be able to grow its soft power, to be recognized as the lea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 well development of the country.

Key words : soft power, hard power, Culture security, Culture business, Culture industry, the rise of a great culture

투 고 일 : 2019. 1. 10. / 심 사 일 : 2019. 1. 15. ~ 2019. 2. 15. / 게재확정일 : 2019. 2. 20.